

I. 중남미 지역의 무역동향

(1) 개요

□ 거대신흥시장인 중남미지역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교역지역으로 부상

- 전통적으로 자원부국인 중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고(高)유가세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빠른 속도로 교역규모가 확대되어 옴.

※ 1990~2014년 세계무역성장률 81%, 중남미무역성장률 89%
 중남미무역액/세계전체무역액: 3.8%('90년) → 5.8%('14년)

- 그러나, 최근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자원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남미 국가들의 무역부진이 심화되고 있음.

□ 중남미 무역부진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흑자 변동성 확대

-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교역 추이를 살펴보면, 수출액 증가세가 지속되고 무역흑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음. 그러나 최근 중남미 무역부진에 따라 對 중남미 수출액 및 수입액 변화율이 일제히 감소함.

※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수출액 변화: 88억 달러('02년) → 401억 달러('11년)
 2014년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(472억 달러) 중 중남미 비중: 37%(176억 달러)
 2015년 10월 기준 對 중남미 수출액 및 수입액 변화율: 전년 대비 -11%

- 최근 무역부진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강화, 외국인투자환경 조성 등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,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주전략의 변화를 모색해야 함.

(2) 중남미 무역현황

□ 수출입 가격하락으로 경제대공황 이후 최대 무역 감소세 전망

- 2015년 중남미 지역의 對 세계 수출액은 경제대공황(1931~33년 평균 23%감소) 이후 최대치인 14%, 수입액은 10%의 감소폭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.

- 2013-15년 수출물량의 증가(1%)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수출가격 하락(-15%)에 따라 수출액이 최대 낙폭을 시현하였고, 동기간 수입액은 수입 가격(-8.5%) 및 수입량(-1.5%)의 동반 하락에 따라 감소함.

- 특히,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수출가격 하락폭이 -20%대를 기록하면서 중남미 전체 수출규모 감소폭(-14%)보다 큰 수출규모 감소폭을 보임.

※ 원자재 가격하락률: 천연가스(-37%), 석유(-48%), 페로니켈(-30%), 설탕(-27%)

- 반면, 멕시코를 포함한 중미지역은 수출물량 증가가 가격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수출액 감소폭이 낮은 수준(-3.7%)을 보임.

<2015년 중남미 지역별 가격 및 수량 효과에 따른 수출입 변화>

(단위: %)

| | 수 출 | | | 수 입 | | |
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
| | 가격 | 수량 | 수출액 | 가격 | 수량 | 수입액 |
| 중남미 지역 | -15.0 | 1.0 | -14.0 | -8.5 | -1.5 | -10.0 |
| 남미 | -20.4 | -0.6 | -21.0 | -9.7 | -7.0 | -16.7 |
| 남미공동시장 | -20.5 | 0.0 | -20.5 | -9.8 | -8.9 | -18.8 |
| 안데스공동시장 | -24.0 | -0.6 | -24.6 | -8.9 | -3.8 | -21.8 |
| 중미지역 | -7.2 | 3.5 | -3.7 | -10.0 | 6.6 | -3.4 |
| 카리브공동시장 | -20.4 | -1.5 | -21.9 | -14.6 | 2.0 | -12.6 |

출처: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(ECLAC)

□ **역외국가와의 교역보다 역내국가 간 교역이 더 큰 폭으로 하락**

- 2015년 중남미 지역의 역외 수출 감소폭은 -13%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나, 역내 수출 감소폭은 이보다 큰 -21%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.
- 2012-14년 세계수출 증가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.6%를 기록하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수요감소로 인해 세계무역의 성장 모멘텀을 상실함.
- 특히, 전세계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중남미 국가의 주요 교역국인 EU, 중국, 미국의 전년 대비 수출 및 수입이 일제히 하락하는 등 교역량 감소세가 확대됨.

<2014-15년 중남미 對 주요 교역국 수출·수입액 변화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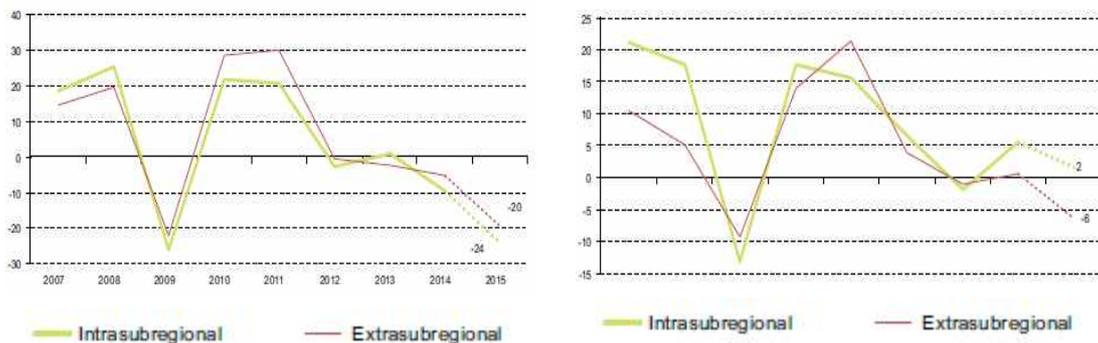
(단위: %)

| | 수출 감소율 | | 수입 감소율 | |
|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| 2014 | 2015 | 2014 | 2015 |
| 세계 | -3 | -14 | -1 | -10 |
| EU | -6 | -17 | -5 | -14 |
| 중국 | -9 | -16 | 5 | -2 |
| 미국 | 3 | -10 | 1 | -9 |

출처: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(ECLAC)

- 역내 국가 간 무역 현황을 보면, 남미지역 역내 교역은 역외교역 감소폭보다 더 크게 감소한 반면, 중미지역 역내 교역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등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.
- 2015년 남미공동시장 및 안데스공동시장의 역내 교역량은 각각 전년 대비 23%, 20%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, 아르헨티나-브라질 간 상호교역량은 중간재, 내구소비재 무역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5%의 감소율을 보임.
- 반면, 중미국가의 경우 중미통합체제 및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교역량이 2%의 상승세를 보임.

<남미지역 vs. 중미지역 역내외 교역 현황>



출처: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(ECLAC)

II. 중남미 무역부진 원인 및 정책대응

(1) 중남미 무역부진 원인

□ 원자재 편중도 및 품목 집중도가 높은 수출구조

- 중남미 지역의 총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감소폭이 확대됨.
- 2014년 기준 중남미 지역의 원자재 수출비중은 60%(멕시코 제외시 77%), 석유·가스 비중은 18.2%로 원자재 편중도가 매우 높음.
- 국제유가는 2014년 7월 1배럴당 100달러에서 2015년 10월말 46.6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, 2015년 7월 기준 철광석 가격은 전년 7월 대비 46.3%, 구리는 22.3%, 대두와 커피는 19.6% 하락하였음.
- 또한, 중남미 국가 수출구조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수출 품목이 제한적이고 중요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.

- 주요 원유 수출국인 에콰도르는 상위 4개 품목이 수출액의 75%를 차지하고, 볼리비아, 콜롬비아, 파라과이도 10개 이하의 품목이 75%를 차지함.

□ 주요 무역대상국의 수입수요 감소

- 2014년 기준 중국은 브라질, 칠레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중남미 지역 전체 기준 EU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교역국*으로,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라 중남미의 수출감소폭이 커짐.

* 중남미 對 중국 수출비중: 1%('00)→10%('14), 수입비중: 2%('00)→17%('14)

- 중국의 수출·투자 주도형 고도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, 건설업 위축으로 구리, 철광석 등 생산자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014년 중순 이후 對중국 수출 감소*가 가시화됨.

* 브라질의 對중국 수출: -11.8%('14)→-28.1%('15.5월)

멕시코의 對중국 수출: -7.8%('14)→-23.6%('15.5월)

아르헨티나 對중국 수출: -19.2%('14)→-6.7%('15.5월)

(2) 중남미 무역촉진 정책 대응

□ 제조업 기반 강화를 통해 수출다변화 실시

- 최근 10여 년간 중남미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원자재 중심의 1차 산업에 집중되었음. 그러나,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심화로 인해 제조업 등 비전통적 수출부문 진출 필요성이 증대함.
- 이에 따라, 개별국은 장기적으로 국가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, 수출구조 중 원자재 비중 축소를 추진 중임.
-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실제 멕시코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폭이 타 중남미 국가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임.

□ 중국의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인프라 갭 축소 및 기술투자 추진

- 2015년 1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-CELAC* 포럼 장관급 회의에서 2015-19 중국-CELAC 협력 계획이 발표됨.

*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

- 포괄적 경제협력을 통해 10년내 중-CELAC 간 무역규모를 5,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으며,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는 50억 달러 규모의 협력펀드 등을 조성할 계획임.

-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 정부의 중남미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프라 갭을 축소하고,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투자 등의 기회로 삼을 전망이다.

Ⅲ. 한-중남미 주요 국가별 무역현황

□ 중남미와 우리나라간 교역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

-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수출은 2004년 100억 달러 돌파 이후 2011년에 역대 최대 수출액인 401억 달러를 기록하였지만, 이후 하락 전환하여 2015년 10월 기준 261억 달러(전년 동기 대비 11.4% 감소)를 기록함.
- 수출액 감소 원인은 국가별로 상이하나, 지역 전반적으로는 가격 하락효과와 물량 감소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<연도별 對 중남미 교역 현황>

(단위: 백만 달러, 천톤, %)

| | 수 출 | | | | 수 입 | | 무역수지 |
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금액 | 증가율 | 물량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
| 2015* | 26,119 | -11.4 | 8,834 | 0.6 | 13,287 | -11.8 | 12,833 |
| 2014 | 35,898 | -1.2 | 10,688 | -4.1 | 18,294 | -0.4 | 17,603 |
| 2013 | 36,328 | -1.1 | 11,141 | -4.8 | 18,364 | -6.9 | 17,964 |
| 2012 | 36,747 | -8.4 | 11,706 | 0.2 | 19,723 | -2.2 | 17,024 |
| 2011 | 40,131 | 10.9 | 11,684 | -4.2 | 20,165 | 37.7 | 19,966 |
| 2010 | 36,187 | 35.2 | 12,196 | 32.2 | 14,645 | 25.7 | 21,543 |
| 2009 | 26,764 | -19.5 | 9,228 | -8.1 | 11,648 | -15.3 | 15,116 |
| 2008 | 33,267 | 29.0 | 10,041 | 9.7 | 13,756 | 21.5 | 19,512 |
| 2007 | 25,781 | 25.2 | 9,151 | 31.9 | 11,324 | 16.4 | 14,457 |
| 2006 | 20,591 | 37.4 | 6,938 | 15.0 | 9,732 | 38.7 | 10,858 |
| 2005 | 14,987 | 29.6 | 6,031 | 32.8 | 7,017 | 5.5 | 7,970 |

* 2015년 10월 누적기준
 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(브라질) 2015년 1~10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5.4% 감소한 49.3억 달러를 기록

- 2015년 10월 기준 상위 5개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(-13.0%), 무선통신기기(-20.1%), 반도체(-46.7%), 평판디스플레이(-47.3%), 자동차(-52.9%)가 일제히 감소함.
- 우리나라의 對 브라질 수출은 브라질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급감하였으며, 브라질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 감소 및 브라질 헤알화 가치 폭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음.

<한·브라질 교역 규모>

단위: 백만 달러, %

| 구 분 | 2013 | 2014 | 2015.10 | 증감률 | 주요 품목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수 출 | 9,688 | 8,992 | 4,938 | -35.4 | 자동차부품,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 |
| 수 입 | 5,573 | 4,907 | 3,193 | -20.0 | 철광, 식물성물질, 곡실류 |
| 합 계 | 15,261 | 13,899 | 8,131 | -30.1 | -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(멕시코) 2015년 1~10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.3% 증가한 96.3억 달러를 기록

- 자동차 및 선박해양 구조물 부품의 높은 수출 증가세(각 9.6%, 9.6%)를 보였으나, 최대 수출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와 4위 수출품목인 영상기기 수출액은 각각 14.1%, 10.3% 감소함.
- 멕시코는 2015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9위 수출대상국이자 중남미 국가 중 최대 수출국이며, 북미시장의 생산기지인 멕시코의 시장 특성상 소비재보다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.
 - 2014년 기아자동차 생산기지 건설 등에 따라 자동차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, 중국의 공격적 생산에 따른 경쟁심화 및 중소형 패널 단가 하락 등에 따라 평판디스플레이 수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.

<한·멕시코 교역 규모>

단위: 백만 달러, %

| 구 분 | 2013 | 2014 | 2015.10 | 증감률 | 주요 품목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수 출 | 9,727 | 10,846 | 9,636 | 10.3 | 평판디스플레이, 철강관, 자동차부품 |
| 수 입 | 2,301 | 3,268 | 2,883 | 5.0 | 원유, 기타금속광물, 석유제품 |
| 합 계 | 12,028 | 14,114 | 12,519 | 1.0 | -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(콜롬비아) 2015년 1~10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7.1% 감소한 9.3억 달러를 기록

- 상위 3대 수출품목인 자동차(-23.0%), 자동차부품(-20.0%), 합성수지(-26.5%)가 감소세를 보였음.
-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, 콜롬비아 경제성장세 악화에 따라 최근 수출이 감소함.

<한·콜롬비아 교역 규모>

단위: 백만 달러, %

| 구 분 | 2013 | 2014 | 2015.10 | 증감률 | 주요 품목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 출 | 1,342 | 1,509 | 937 | -27.1 | 자동차, 자동차부품, 합성수지 |
| 수 입 | 207 | 608 | 280 | -31.7 | 원유, 합금철 선철 및 고철, 기호식품 |
| 합 계 | 1,549 | 2,117 | 1,217 | -28.2 | -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(페루) 2015년 1~10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9.3% 감소한 10.2억 달러를 기록

- 2015년 10월 기준 상위 5개 수출품목인 자동차(-11.1%), 합성수지(-21.4%), 무선통신기기(93.6%), 정밀화학원료(22.5%), 항공기 및 부품(-55.5%) 중 3개 항목이 큰 폭으로 감소함.
- 중남미 국가 중 칠레 이후로 두 번째 FTA 체결국(2011년 발효)으로 사업 참여기업과의 경영안정계약 체결을 통한 투자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영위하고 있음.

※ 현재 미국,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TP) 참여('15. 10월 타결) 등 다자간무역협정도 적극 추진 중

<한·페루 교역 규모>

단위: 백만 달러, %

| 구 분 | 2013 | 2014 | 2015.10 | 증감률 | 주요 품목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수 출 | 1,440 | 1,392 | 1,020 | -9.3 | 자동차, 합성수지, 항공기 및 부품 |
| 수 입 | 1,983 | 1,434 | 953 | -18.6 | 동광, 기타 금속광물, 아연광 |
| 합 계 | 3,423 | 2,826 | 1,973 | -14.0 | -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IV. 우리나라와 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

□ 중남미지역의 정책 대응에 따른 수출전략 수립 필요

-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한 국가는 멕시코*로, 이는 멕시코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 인프라,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대미수출의 중간기지 역할을 하는 것에서 기인함.

* 멕시코 수출 증가율: 10.3% ('15. 10월 기준)

- 멕시코 교역 구조를 참고하여, 타 중남미 국가들은 수출품목 및 산업 정책의 변화, 대외 협력 강화 등 수출촉진 정책대응을 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되는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함.

□ FTA 적극 체결로 수출증대 추진 필요

-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국가는 칠레('04. 4월), 페루('11. 8월) 2개국에 불과하고, 서명이 완료되어 발효 예정인 국가는 콜롬비아가 유일함.

- 중남미 정부의 수입 억제, 과세 부과, 복잡한 통관절차 등 보호무역 정책은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주요 중남미 국가들과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함.

- 주요 중남미 국가의 한국산 제조업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보면 FTA를 체결한 페루의 경우 1.55%에 불과한 반면, 아르헨티나, 브라질은 각각 10.8%, 13.0%의 높은 관세에 직면함.

<주요 중남미 국가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>

| 산 업 | 아르헨티나 | 브라질 | 페루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제조업 | 10.74% | 12.98% | 1.55% |

자료: IDB(미주개발은행)

- 또한, 직·간접적인 FTA 홍보 및 FTA를 활용한 양국 간 교역확대, 산업협력, 투자교류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.

□ 저유가를 기회로 중남미 해외사업 참여 여건 마련

- 201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 투자액(FDI)은 1,590억 달러로 전세계 FDI의 13%를 차지하였고, 이 중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중점 투자대상 분야인 원유 등 천연자원 부문은 축소됨.

- 2009~13년 기간 동안 중남미 지역의 총 FDI의 24%가 천연자원 부문에 집중되었으나, 원유공급 과잉 등으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14년 17%로 축소되었음.
- 우리나라의 2014년 중남미 투자액은 42억 달러에 불과하고 금융 및 보험업에 집중(27%)되어 있는 상황이나, 저유가 환경을 해외 우량 자산 확보 기회로 삼아 중남미 해외사업에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세계 10위 석유생산국인 멕시코는 2015년 7월 및 9월 두차례에 걸쳐 1, 2차 입찰을 진행하는 등 1938년 국유화 조치 이후 최초로 민간에 광구를 매각하고 있어, 경험이 풍부한 외국계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.
- 일본의 경우 내년도(2016.4월~2017.3월) 석유개발 지원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48억 엔(6.2억 달러)로 편성하여, 적극적인 해외자산 매입과 지분참여를 통해 2030년까지 자주개발률을 40%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함.

□ 인프라개발 사업 수주노력 강화 필요

- 중남미 국가 대부분은 천연가스,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반면, 인프라 수준이 미흡한 수준으로, 인프라 부문 투자 잠재력이 높음.
- 브라질 정부의 경우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*(PAC)을 통해 향후 인프라 부문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.
 - * 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투자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장려 방안이 포함됨.
- 특히, 브라질과 페루의 한국산 수입품 화물운송료는 관세비용을 훨씬 웃도는 상황임. 교통 인프라 개발사업의 참여를 통해 인프라 부문 투자 진출과 더불어 운송비 절감을 통한 수출확대를 촉진할 수 있음.
- 도로, 철도, 항만시설,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다방면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에 PPP 방식을 적용한 우리나라 성공사례를 사업 모델화 하여 각국의 투자진흥청 등에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음.
-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(KSP)을 통해 투자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국가 앞 PPP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, 추후 우리기업이 동 사업에 사업참여자로 진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< 참 고 문 헌 >

한국수출입은행, 석유·가스 등 에너지 시장 2015년 3/4분기 동향 및 전망, 2015. 11

한국수출입은행, 페루 민관협력사업(PPP) 추진 현황과 시사점, 2015. 6

ECLAC, *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World Economy 2015. The regional trade crisis: assessment and outlook*, 2015. 10

ECLAC, *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5*, 2015. 6

IDB, *The Trade and Integration Monitor 2015. Double Dip: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Facing the Contraction of World Trade*, 2015. 10

IDB, *Korea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: Striving for a Diverse and Dynamic Relationship*, 2015. 3